

■ 주요 뉴스: 미국 11월 근원PCE 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지속 여부 등에 관심

- 미국 정부, 내년 초부터 전략비축유 확충에 나설 계획
- 중국, 코로나 19가 빠른 속도로 확산. 의약품 부족 및 경제활동 감소 등이 발생
- 일본 일부 언론, 장기간 지속된 통화정책 완화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1%],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10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12월 FOMC 관련 매파적 평가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ECB의 금리인상 지속 의지 등으로 3.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및 금리인상 전망 등이 상충
유로화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22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3% 상승, 한국 CDS 상승

		12/16일	12/9일	전주말대비			12/16일	12/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52.4	3,934.4	-2.08%	국채 금리 10y	미국	3.48%	3.58%	-10bp
	유럽	424.74	439.13	-3.28%		독일	2.15%	1.93%	22bp
	중국	3,167.9	3,207.0	-1.22%		영국	3.33%	3.18%	15bp
	일본	27,527	27,901	-1.34%	CDS 5y	한국	56bp	54bp	2bp
	한국	2,360.0	2,389.0	-1.21%		중국	76bp	75bp	1bp
	달러지수	104.70	104.81	-0.10%	위험 지표	EMBI+	384	376	8bp
환율	유로화	1.0586	1.0540	0.44%		VIX	22.62	22.83	-0.92%
	엔화	136.60	136.56	-0.03%		WTI유	74.29	71.02	4.60%
	위안화	6.9740	6.9584	-0.22%	원자재	구리	376.2	387.6	-2.95%
	원화	1,305.4	1,301.3	-0.31%		금	1,793.1	1,797.3	-0.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지속 여부 등에 관심
 - 12/23일 연준이 선호하는 11월 PCE 물가 지표들이 공개될 계획. 시장에서는 11월 PCE 물가 지표들이 소비자물가(CPI)와 비교하여 다소 견조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
 - 블룸버그 등은 11월 근원 PCE 물가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0.3%~0.4%, 4.6%~4.7%를 나타내 전월(각각 0.2%, 5.0%)과 비교하여 상승 및 하락을 예상. 헤드라인 PCE 물가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의 경우 0.2%~0.3%, 5.3%~5.6%로 전월(각각 0.3%, 6.0%)에 비해 보합 혹은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PCE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 이에 향후 PCE 물가 지표들의 하락세 역시 CPI에 비해 약할 것으로 판단. 다만 블룸버그는 4/4분기 근원 PCE 물가의 경우 연간 상승률이 4.7%로 12월 FOMC의 예상치(4.8%)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년 2월 0.25%p 인상 및 3월 최종금리 (4.75~5.00%) 도달을 예상. 아울러 9월과 12월에 각각 0.25%p 금리인하를 예측하고 있어 연준과 비교 시 조금 더 비둘기파적(dovish) 기대가 존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정부, 내년 초부터 전략비축유 확충에 나설 계획
 - 에너지부는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략비축유 확보가 가능한 기회가 도래했다고 발표. 한편 에너지부의 원유 매입은 이전과 달리 고정 가격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
- 미국 정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예외 조치를 9개월 연장
 -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로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352개 품목의 관세 부과 유예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 재연장되는 품목들 가운데 펌프, 콤프레서, 필터 밸브, 모터 등 산업용 부품이 다수.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상승 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철폐를 검토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내년 2월 ECB의 0.50%p 인상을 예상

- 포르투갈 중앙은행 센테노 총재는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긴축을 경계해야 하며, 이에 ECB가 다시 0.75%p 인상엔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 아울러 금리는 점차 중립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첨언
- 핀란드 중앙은행의 렌 총재 역시 2월 및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인상이 예상된다고 발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은 매우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0.75%p 인상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

■ 이탈리아 경제장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강력 대응할 필요

- 지안카를로 지오르게티 장관은 IRA로 인해 일부 이탈리아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 이처럼 이탈리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IRA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코로나 19가 빠른 속도로 확산. 의약품 부족 및 경제활동 감소 등이 발생

- 당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한 이후 대도시에서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약품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또한 관련 영향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근무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최소한의 활동만을 유지

■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통화정책을 통해 내년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

- 류 귀창 부총재는 내년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금년보다는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 자본조달 비용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

■ 일본 일부 언론, 장기간 지속된 통화정책 완화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

- 교도통신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했던 대규모 금융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일본은행 차기 총재 임기 시작) 이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이는 엔화 약세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로존 10월 건설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 통화당국, 임금상승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should beware mistaking wage rises for an inflation problem)

-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가 증가. 반면 연준과 ECB는 1년 후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을 각각 3.1%, 3.6%로 전망하면서도 최종금리 수준 상향 가능성 등 매파적 기조를 유지. 이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특히 미국은 임금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 등이 존재
- 그러나 고물가 영향으로 임금상승이 가파르다면,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경우 임금상승이 둔화될 소지.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임금상승은 노동자의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의 이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성 등에 기인(David Autor).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주요 은행,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요구 - Financial Times

(American banks need to repair their capital buffers)

-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계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확대. 그러나, 충격에서 회복된 뒤 투자자 수익률 확보 등을 강조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
- 그 결과, 최근 8대 주요은행의 유형자본이 총 자산의 6.7%에 그치는 등 레버리지 비율이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 금년 3/4분기 은행업계의 투자 포트폴리오 손실이 거의 6,900억달러에 달한데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은 자본 확충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

■ 중국의 경제심리, 사망자 급증 등으로 위축될 우려 - The Economist

(Our model shows that China's covid death toll could be massiver)

- 최근 중국 정부가 무증상 확진자 수 발표와 정기 PCR 검사 등을 중단하면서 코로나 상황 파악에 애로가 가중. Economist가 감염률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방역 통제 미비 시 사망자수가 150만명에 달하며 이는 여타 기업들의 추정치와 유사. 특히 병상수 부족 등 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
- 정부에 대한 신뢰성 약화도 코로나19 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인. 일례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환자 침상의 개수(13.8만개)는 이전 발표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시 경제심리 위축이 심해질 소지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여부, 부채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WSJ**

(Time Might Run Out on Japan's Low-Rate Policy)

-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국 경제 경쟁력 약화,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확대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 또한 대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 이러한 요인들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압력 확대를 초래
- 금리인상 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커질 우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63%에 달하는 정부의 상환 부담 증가도 문제. 재정건전성 우려로 영국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자국 투자자들이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은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

■ **'23년 미국 주식 및 채권가격, 경제 둔화 불구 상승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Star Trek' script for markets in 2023)

■ **미국 주택시장, 정책 변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붕괴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편 - WSJ**

(Why This Housing Downturn Isn't Like the Last One)

■ **ECB 통화정책, 예상보다 작은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긴축 강화를 초래할 소지 - WSJ**

(Europe Is Weathering Russia's Energy Storm—and the ECB Know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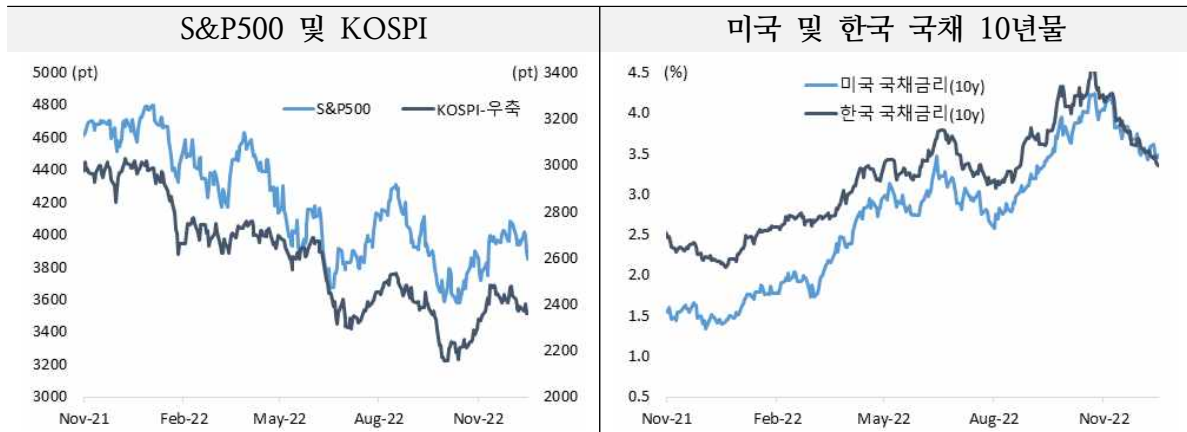
■ **유럽 정부의 재정 여력, 높은 가스 가격 장기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 - 블룸버그**

(Europe's \$1 Trillion Energy Bill Only Marks Start of the Crisis)

■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정유 수출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Russian oil cap: a boon for Asian refin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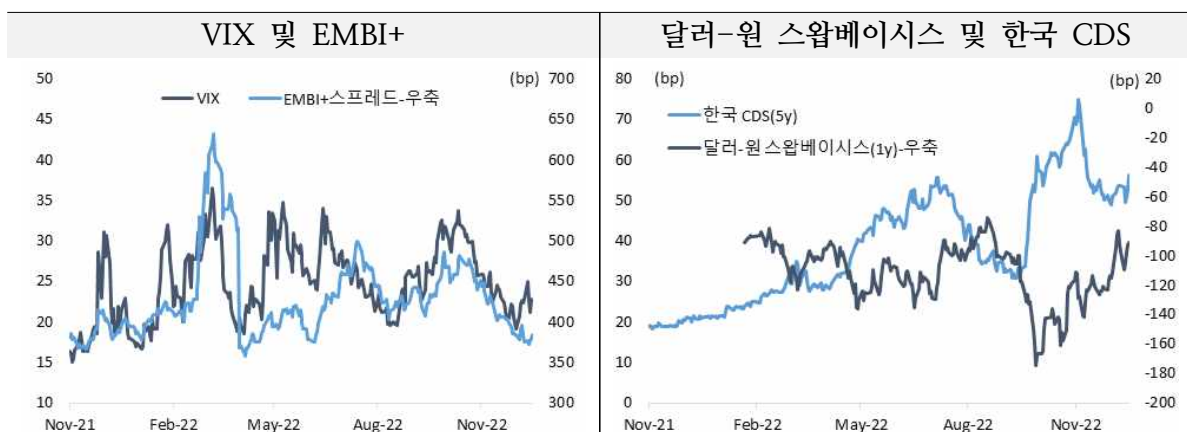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